

강영미 세계선수권 에페 단체전 금메달

(광주 서구청)

결승서 이탈리아 45-37 제압
한국 여자 에페 단체 첫 우승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4연패

광주서구청 강영미(37)가 2022 펜싱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한국 여자 에페 사상 첫 세계선수권 단체전 금메달이다.

강영미, 송세라(부산시청), 이혜인(강원도청), 최인정(계룡시청)으로 구성된 한국 여자 에페 대표팀은 지난 22일(한국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펜싱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45-37로 제치고 시상대를 정복했다.

펜싱 세계선수권대회는 2019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지난해 도쿄올림픽 개최 등으로 3년 만에 열렸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18년 은메

달이 최고 성적이었던 한국 여자 에페는 강영미, 송세라, 이혜인, 최인정 4명이 호흡을 앞세워 사상 첫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획득했다.

팀 세계랭킹 1위인 한국은 결승에서 팀 세계랭킹 2위인 이탈리아를 만나 한 수 위의 실력을 과시했다.

초반부터 한국이 우세했다. 첫 번째로 피스트에 오른 강영미가 로셀라 피아밍고를 상대로 연거푸 점수를 따내며 3-0으로 앞섰고, 2라운드에서는 송세라가 페데리카 이솔라를 압도하며 6-0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4라운드에 다시 나선 강영미는 페데리카 이솔라를 상대로 17-9로 경기를 주도했다. 잠시 이탈리아에 쫓기기도 했다. 7라운드에 27-24 3점 차로 점수가 좁혀지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베테랑 강영미가 8라운드에 나섰다.

상대는 알베르타 산투치오. 먼저 1점을 내줘 2점 차까지 추격을 당하는 듯했으나 강

영미는 노련했다. 연이어 점수를 얻어내며 32-27 5점 차로 8라운드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9라운드는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송세라가 나섰다.

로셀라 피아밍고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송세라는 경기 종료 20초 전 43-33으로 10점 차 격차를 벌렸다. 이탈리아의 마지막 반격에도 흔들리지 않은 송세라는 45점까지 수확, 완벽한 마무리를 지었다.

여자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땀던 송세라는 단체전 우승으로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강영미는 25일 귀국, 다음달 9일부터 흥천에서 열리는 제62회 대통령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남자 사브르 대표팀도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오상욱(대전시청), 김정환, 구본길(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화성시청)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이날 단체전 결승에서 헝가리를 45-37로 꺾고 우승을 차



한국 여자 에페 대표팀이 지난 22일(한국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2 펜싱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국제펜싱연맹 홈페이지

지했다. 한국은 2017년 독일 라이프치히, 2018년 중국 우시,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4회 연속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사브르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최진화 기자



골 세리머니 하는 강성진 24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동아시아컵 남자부 2차전 한국과 홍콩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트린 강성진이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한국이 3-0으로 이겼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김영건·이준 국제장애인탁구 금메달

남자복식 결승 태국 3-2 제압

광주시청 김영건(38)이 지난 18-21일 태국에서 열린 2022 태국 오픈 국제장애인탁구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남자복식에서 김영건과 호흡을

맞춘 광주시장애인탁구협회 이준(32)은 첫 국제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영건은 이준과 함께 나선 남자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결승에서 태국을 만난 김영건-이준은 세트스코어 3-2(3-11 8-11 11-4 12-10 11-9)로 짜릿한 역전 우승

의 기쁨을 만끽했다.

김영건은 한국 남자 장애인 탁구 대표팀의 '터줏대감'으로 이번 국제대회에서도 맹활약했다. 남자개인전과 혼합복식에서는 은메달을 기록했다.

이준은 광주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선발 등으로 지원을 받으며 훈련한 결과 세계적 수준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려 국제대회 첫 메달이라는 쾌거를 남겼다. /최진화 기자

목포과학대, 대한항공배 무안대회 여대부 우승

이은선 최우수선수상

목포과학대학교가 무안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2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무안대회 여대부 우승을 차지했다.

목포과학대는 우석대와 3승1패로 동일 전적을 기록했으나 우석대와 경기에서 승리,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목포과학대는 지난 18일 단국대와 첫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25-23 25-23 25-22)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우석대와는 접전 끝에 승리했다. 세트스코어 3-2(23-25 25-21 17-25 25-19 15-8)로 이어 2승을 챙겼다.

경일대와 경기에서는 2-3(11-25 25-20 25-19 15-25 14-16)으로 5세트 접전 끝에 패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호남대와의 마지막 경



목포과학대학교가 지난 21일 무안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2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무안대회 여대부 우승을 차지했다. /목포과학대 제공

기에서 세트스코어 3-0(25-21 25-18 25-7)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3승 1패로 대회 정상에 올라섰다.

이은선(2년)이 최우수선수상을 받았고

신현주(2년)가 리베로상, 박민정(2년)이 세터상, 엄세희(1년)가 블로킹상을 수상했다. 이주희(1년)는 신인상, 서정식 감독은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최진화 기자

페퍼저축은행, 일본 전지훈련 돌입

일본 프로팀과 연습경기

페퍼저축은행 선수단이 24일 일본 도쿄로 출국, 첫 해외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실전이 가미된다. 페퍼저축은행은 31일까지 일본 여자배구팀 NEC, 사이타마 아게오 메딕스, 히타치와 세 차례의 연습 경기를 소화하기로 했다. 페퍼저축은행은 다음달 열리는 KOVO컵을 대비, 실전 감각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여자부 7개 구단이 국외 전지훈련을 검토·추진한 가운데 페퍼저축은행은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이미 도쿄행을 확정했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김형실 감독을 포함해 팀 창단 후 처음으로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영입한 베테랑 세터 이고은, 리베로 김해빈, 그리고 '2022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에서 뛰고 돌아온 주장 이한비 등 선수 14명이 참가했다. /조혜원 기자

페퍼저축은행의 전지훈련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7개 여자 구단 중 유일하게 해외 전지훈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여자배구팀 NEC와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로 초청장을 받아 비자 발급이 수월했다.

김 감독은 "계약을 한발 빠르게 해서 다른 구단에서도 부러움의 반응이었다. 처음으로 전지훈련에 가는 선수들도 있어서 다들 자부심이 생겼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일본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8월 1일부터 강화된다는 점이다. 선수들의 훈련기간과 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 10승을 목표로 정한 김 감독은 "장단 2년 차인 만큼 기성팀과 견줘도 부족함이 없는 팀이 되기 위해 선수단 모두가 합심하고 있다"며 "기량이 뛰어난 일본 실업팀들과의 경기를 통해 팀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

세한대, 하계 대학유도연맹 단체전 준우승

심재민·김민성 각각 은메달

세한대학교가 2022 하계 전국 남·여 대학 유도연맹전 남자 대학부 체급별 7인조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세한대는 지난 22일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체급별 7인조 단체전 예선에서 국민대와 국제대를 누르고 4강에 진출했다. 4강에서 경운대를 4-0으로 이긴 세한대는 결승에서 동의대에 0-4로 져 준우승으로 시합을 마무리했다.

단체전에 앞서 열린 개인전에서는 2개의 은메달을 획득했다.

심재민(4년)이 남자 -66kg급 결승에서

이도협(용인대)에게 연장전 끝에 업어치기 되치기로 절반을 내줘 2위에 만족했다.

김민성(1년)은 남자 +100kg급 결승에서 송진희(용인대)에 지도패, 2위를 기록했다. 김민성은 시합 일주일 전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온전한 몸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전부터 지도승을 이끌며 결승전에 올라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거는 저력을 발휘했다.

세한대 노박환 감독은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다음 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신대철 광주시유도회 전무 국제심판 자격 취득

신대철광주시유도회 전무이사(광주도시철도공사 감독)가 국제유도연맹(IJF) 국제심판자격시험(conti)에 합격했다.

24일 광주시유도회에 따르면 신 전무는 지난 15-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심판자격시험에서 1차 영어 면접과 2차 유도 기술실기, 3차 아시아 유소년 및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심판기능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 합격증을 받았다. 광주시유도회가 국제심판을 배출한 것은 30년 만이다.

신 전무는 광주체고에 용인대를 졸업했으며 교고인 광주체고에서 전임지도자로 15년간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양성했고 현재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유도단 감독과

유도회 심판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신대철 전무는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염창근 광주시유도회장과 정용석 상임부회장님께 감사드리다"며 "또 응시 기회를 주신 조용철 대한유도회장과 문원배 동아시아유도연맹 심판위원장님 등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신대철